



농촌지도자 전북자치도 한마음대회 성료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2일 장수군 종합실내체육관에서 회원과 관계자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5 한국 농촌지도자 전북특별자치도 한마음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전북농촌지도자연합회는 우애·봉사·창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후계세대 육성에 앞장서며, 도내 14개 시·군 7,10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인 단체다. 이날 대회에서는 농촌지도자회와 도정발전에 기여한 우수회원 25명에게 도지사 표창과 중앙연합회장상 등이 수여됐다.

행사장에서는 시군별 농특산물·농기계 전시와 체험부스가 운영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장수군 노인복지관에 물품을 기탁하는 뜻깊은 자리도 마련됐다. /이만호 기자



메가젠임플란트, 전북대에 구강 스캐너 기부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지난 21일 ㈜메가젠임플란트·미르치과병원(박광범 대표)로부터 약 5천만 원 상당의 구강스캐너를 헌물로 기증받았다고 전했다.

이번에 기증된 장비는 치과대학 학생들이 실습할 수 있도록 구성된 최신 디지털 진료 장비로, 교육과 연구 현장에 즉시 투입될 예정이다.

㈜메가젠임플란트는 국산 치과 임플란트 브랜드 중 '유럽 수출 1위'를 달성하며 세계 시장에서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은 글로벌 기업이다.

이에 전북대는 이날 ㈜메가젠임플란트 관계자들을 대학에 초청해 감사패를 전달하며 고마움을 표했다. /장은성 기자



아이돌봄센터 운영 고향사랑기부금 지정기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22일 전북지구 청년회의소와 김제청년회의소가 아이돌봄센터 운영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지정기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지구 청년회의소 김경환 회장 300만원, 김제청년회의소 최문수 회장이 200만원을 기탁했다.

청년회의소는 19세에서 45세까지의 청년들로 구성되어 회원들의 능력개발과 봉사 등 사회환원 활동, 사업 등을 진행하는 민간사회단체다. /김제=곽노태 기자



육군35사단, 주둔지 내 화학탄 낙탄 가정 훈련

육군 제35보병사단(이하 35사단)은 지난 22일 2025 UFS/TIGER 연습 기간 중 사단 주둔지 내 적의 화학탄 낙탄 상황을 가정해 직할부대 전 기능 통합된 실질적 야외기동훈련(FTX)을 실시했다.

훈련 개시와 동시에 미사일 경보 사이렌이 울리고 상황이 전파되자 화생방 정찰 차량과 탐지병력이 신속히 출동해 낙탄지점을 확인하고 방독면과 보호로 무장한 채 오염지역 제거 작전을 펼쳤다. 동시에 의무요원들은 오염 의심 환자를 분류하고 응급처치를 실시했다. 또한, 각 부대는 예비 지휘소로 이동해 제독작전까지 실천처럼 진행했다.

특히, 직할부대 전 부대가 One-Team이 되어 각 기능의 역할에 따라 △화생방감시소 운영 및 필수지역 제독 △이동진료반 및 대량전상자치처치반 운용 등 실천적으로 임무를 숙달하며 즉각적인 대응능력을 향상시켰다. /이만호 기자

나눔 문화 확산·하계올림픽 준비 협력

전북자치도,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 전북지구 신임 총재단과 간담회

전북특별자치도는 22일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 전북지구 신임 총재 및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48대 박성춘 신임 총재 취임을 축하하고, 전북지구의 주요 활동과 향후 사업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물품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약 40억원 규모의 봉사활동을 펼쳐며 지역사회에 큰 기여를 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라이온스는 봉사와 나눔을 통해 도민이 행복한 전북을 만들어가는 든든한 동반자"라며 "앞으로도 기부·봉사 문화 확산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하계올림픽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풍요롭고 행복한 전북 실현을 위해 민생 살리기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 전북지구는 1964년 설립 이래 도내 106개 클럽, 4,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중이다. '열정·초심 함께하는 라이온'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불우이웃 지원,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 장학금 및 구호

봉사와 나눔을 통해 도민이 행복한 전북을 만들어가는 든든한 동반자"라며 "앞으로도 기부·봉사 문화 확산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하계올림픽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풍요롭고 행복한 전북 실현을 위해 민생 살리기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발달장애인 자립 돕는 일자리 협력 | 도, 도로공사 등과 협약 체결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2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사)창해복지재단, (주)한남상사와 함께 발달장애인의 직업훈련과 취업 연계를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노홍석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이용한 관리처장, 창해복지재단 김민진 이사장, 한남상사 이원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자립을 돕기 위한 지속 가능한 고용 모델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 기관들은 △직업훈련 지원 △현장실습 및 근로환경 조성 △취업 연계 등 발달장애인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익산 미륵사지 휴게소를 중심으로 발달장애인 3~5명을 회차별로 선발해 6개월간 직업훈련, 멘토링, 사회성 교육 등을 제공한 뒤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여자들은 휴게소 내 편의점 물품 판매, 카페 바리스타, 위생 관리 등 개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게 된다.

각 기관의 역할도 분담됐다. 전북도는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 지원과 협력 조율을 맡고, 한국도로공사는 근로 기회 제공과 향후 지역 고용 연계를 검토한다. 창해복지재단은 직무 분석과 사전 교육, 현장 적응 지원을 담당하며, 휴게소 운영사인 한남상사는 직업훈련과 현장실습, 급여 지급 등 실질적 직무 체험을 뒷받침한다.

전북자치도는 향후 성과에 따라 일자리 모델을 다른 휴게소로 확산시켜 발달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넓히고, 포용사회의 모범 사례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도, 완주산단 내 정우정공 찾아 '저출생 대응 릴레이'

전북특별자치도가 저출생 대응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도는 지난 22일 완주산업단지 내 정우정공(주)을 찾아 세 번째 현장 간담회를 열고 가족친화 문화 확산 정책의 정착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천영평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조운정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상완 정우정공(주) 대표이사, 육명진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 본부장 등이 참석해 가족친화 문화 확산 정책의 현장 인착 사례를 점검하고, 기업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새롭게 도입한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는 현장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80명 지원을 목표로 현재 77명이 참여해 98%를 달성했으며, 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는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학부모가 최대 3개월간 한 시간 단축근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에게는 최대 1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자녀 돌봄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인력 운영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다.



1974년 설립된 정우정공(주)은 남녀 육아휴직, 가족돌봄 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차출퇴근제 등 다양한 가족친화 복지제도를 운영하며 일과 가정의 균형을 실현해 가고 있다. 특히,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시행하며 기업과 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젊은 세대·홈술 겨냥... 하림, 올해 신제품 설명회 성료

종합식품기업 (주)하림이 지난 21일, 익산시 합월 '고스락 이화동산'에서 '신제품 설명회'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호석 대표이사를 비롯한 하림 임직원과 익산시 출입기자단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하반기 시장을 공략할 주요 신제품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서 하림은 급변하는 소비트렌드에 맞춰 진화하는 닭가슴살 제품과 '홈술' 트렌드를 겨냥한 닭발 편육 신제품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하림은 "맛있는 다이어트"를 추구하는 '헬시 플레저(Healthy Pleasure)' 트렌드에 맞춰 닭가슴살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닭가슴살이 '뽕장'을 위한 식재료만 여겨졌다면, 이제는 맛과 식감을 강조한 제품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MZ세대를 겨냥해 '동대문 엽기떡볶이'와 협업해 출시한 닭가슴살 제품은 2025년 5월 출시 이후 누적 판매량 25만 팩을 돌파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림은 2030세대가 압도적인 선호도를 보이는 '동대문 엽기떡볶이'와의 협업을 통해 '맛있없(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을 만들어냈다



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하림은 '홈술'과 '혼술' 트렌드로 성장하는 간편 안주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신제품 '닭발 편육' 2종(매콤한맛, 갈릭맛)을 선보였다.

이 제품은 HACCP 인증을 받은 100% 국내산 무뼈 닭발을 사용했으며, 별도의 조리 없이 바로 섭취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제품 컨셉 브리핑에 이어 참석자들이 '엽떡 닭가슴살'과 '닭발 편육' 등을 직접 맛보는 시식 회도 함께 진행되었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주모래내시장상인회 치맥축제 성료

시원한 생맥주와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안주를 함께 즐기며 한여름 무더위를 식히는 축제가 열렸다.

전주모래내시장상인회(회장 김병권)는 22일과 23일 이틀간 덕진구 모래내시장길 특설행사장에서 '모래내시장 제8회 치맥가뭇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올해 행사에는 첫날 우범기 전주시장 등 내외빈과 일반시민들이 참석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연인원 4000명 이상이 참여해 전통지역 전통시장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올해 축제에서는 모래내시장 상인들이 직접 만드는 치킨과 홍어회무침, 튀김 등 다양한 먹거리를 중심으로 당일 생산된 생맥주가 판매됐다.

또한 인기 가수들의 축하 무대 등 다양한 문화공연도 펼쳐졌다.

전주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평소 판매자와 고객으로 나누어져 있던 시장 상인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면서 전통시장이 지역공동체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병권 모래내시장 상인회장은 "매년 많은 분이 행사를 기다리고 찾아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면서 "내년에도 한층 더 풍성하고 재미있는 행사를 준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남원자원봉사센터, 폭염 대비 안전센터 운영

남원시자원봉사센터는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폭염대비 안전센터'를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남원 피오리움 일대에서 운영했다.

안전센터는 매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운영되었으며 전북농협, 전북은행, 전북개발공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북본부의 후원과 자원봉사단체 '봉사랑'의 참여로 이루어졌으며, 센터를 찾은 시민들에게 시원한 얼음물과 휴대용 부채를 제공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기초생활보장 담당자 직무교육

남원시는 지난 22일 시청 및 읍면동의 기초생활보장 업무 담당 공무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업무 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담당자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 기초생활보장 사업 주요 개정 사항, 부정수급 예방 및 신청서류 접수 시 유의 사항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교육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 담당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농협, 제5기 다문화여성대학 수료식

김제농협(조합장 이정웅)은 최근, 본점 3층에서 제5기 다문화여성대학 수료식을 열고 지역 내 다문화 여성들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 축하했다.

올해 교육과정에는 필리핀 8명, 인도네시아 1명, 라오스 1명, 우즈베키스탄 1명, 일본 1명 등 5개국 출신 12명의 다문화 여성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7월 2일 개강 이후 약 두 달간 매주 수요일마다 △한글 쓰기 △우리 전통 간식 만들기 △주말리 제작 △생활영어 △다문화 이해와 한국문화 이해 등 8회에 걸친 맞춤형 프로그램을 수강하며 수료증을 받았다. /김제=곽노태 기자